

평화의 사도

재속 프란치스코 피닉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준비형제회 월보

Secular Franciscan Order of Phoenix
St. Daegun Andrew Kim's Forming Group



평화의 사도
프란치스코 성인을 따라

2007년 7월 (제 37호)

병 중에 드리신 기도

주 하느님, 저의 이 모든 고통에 대하여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저의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백배의 고통을 더해 주시기를 비나이다.

당신의 거룩한 뜻을 실행함이

제게는 넘치는 위안이 되기에,

저를 가차없이 고통으로 괴롭히시는 것을

진정 기쁘게 받아들이겠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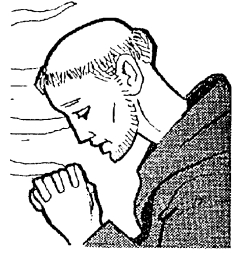
월례회: 매월 4째 토요일 오후 4시, 회관 2211 S. Kachina Dr., Tempe, AZ 85282, (480)968-4417

영적 보조: 장민호 미카엘신부, 2211 S. Kachina Dr., Tempe, AZ 85282, (480)968-4417

Minister: Michael Reidy (480)722-9446

성 프란치스코 영적인 권고 <2. 자기 의지를 자기 것으로 하는 악(惡)>

주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 말아라"(창세 2,16.17). 아담이 순종을 거스르지 않았을 때까지는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동산에 있었던 모든 열매를 따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자기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선(善)을 자랑하는 바로 그 사람은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악마의 꾀에 빠져 계명을 거슬렀기 때문에, 먹은 것이 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입회기 양성교재 ‘폰테 콜롬보’

<제18과> 피조물에 대한 사랑

회칙 2장 생활 양식

제 18조

이밖에도 회원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표지를 지닌” 다른 피조물, 곧 생물과 무생물에게서까지 존경심을 표현하고 남용하려는 유혹을 극복하며, 프란치스코께서 지녔던 보편적 형제애의 정신을 지니도록 힘써야 한다.

프란치스코는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의 표지를 보았고 그들을 **하느님의 선물**이며 한 **형제**로 대했다. 하느님의 선물인 피조물을 통하여 **우주적 형제애**를 느꼈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꼈다. 재속프란치스코인 우리도 생물과 무생물에 대한 우주적 형제애를 느끼며 보호하여 **창조질서 보존**에 참여해야 한다.

피조물의 노래 ‘피조물의 노래’, 또는 ‘태양의 노래’는 성인이 생애 말년 병중의 고통중에 쓴 것이다.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나아가 그들의 창조주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 이 찬가를 통해 성인은 고통과 죽음까지도 자매로 찬미하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 ‘피조물의 노래’는 고통과 절제, 회개와 십자가를 통해서 정화된 사랑으로 자연을 찬미할 수 있게 된 한 회개자의 삶의 절정을 보여준다. 피조물을 형제 자매로 부르고 대함은 인간의 이기주의를 극복함이며 피조물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선함을 통해 창조주의 표지를 볼 수 있음은 온전히 하느님께 향한 그의 마음의 결실이다. .

보편적 형제애 성인을 이끄는 근본은 하느님 사랑의 체험이다. 성인은 피조물 안에서 절제와 조화와 함께 하느님의 권능과 사랑을 그리고 그들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보았다. 그래서 성인은 모든 피조물들

을 형제 자매라 부르고 그들은 창조주이신 하느님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형제로 평등하게 대했다. 성인은 길가의 하루살이 애벌레를 안전한곳으로 옮기기도 하였고 나무를 할 때에는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뿌리를 찍지 못하게 하는 등 동물, 식물 그리고 감각이 없는 피조물에까지도 동정과 사랑을 느꼈다. 성인에게는 자연은 우리 삶의 도구가 아니라 동반자요 동료였다. 하느님에 의하여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한 형제로 보는 데에 성인의 보편적 형제애가 있다. 프란치스코의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형제애를 본받아 우리도 피조물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하고, 보편적인 형제애를 지녀야겠다

피조물을 통하여 하느님께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성인을 피조물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게 하였고, 피조물은 성인을 하느님께 이끌었고, 성인은 피조물을 통하여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해, 달, 별등 피조물과의 산 체험을 통하여 강한 신앙심을 키웠고 피조물들이 보여주는 ‘우리를 만드신 가장 좋은 그분’을 따라 갔다.

피조물과 함께 성인은 창조물인 피조물을 통하여 하느님을 보았을뿐 피조물에 신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가꾸시는 정원이다. 인간은 피조물과 더불어 창조주이신 하느님은 찬미하며 그 분이 창조하신 세상을 잘 보존해야 한다.

피닉스 준비형제회 소식 및 회계보고

♥ 6월 16,17 1박 2일 김기수신부님을 모시고 세도나 Chavez Crossing Camp Ground에서 피정이 있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새로운 평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회장: 남주연 미카엘

부회장: 김유태 요셉

서기: 김미현 미카엘라

회계: 이지연 크리스티나

양성: 정부일 디오니시오

그 동안 수고해주신 홍철옥 프란치스코형제님을 비롯한 지난 평의회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5년만에 열린 피츠버그에서의 국가형제회 피정에 김종덕 미카엘형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 지난 7월11일 김종덕 미카엘형제님과 김정순 테레사자매님의 금혼식이 뉴저지에서 있었습니다. 김기수 프란치스코신부님과 조후연 야고보신부님께서 주례를 해주셨고 김요셉, 요세피나 가정과 구순이 아그네스자매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최정근 베르나르도형제님과 최정임 안나자매님께서 모친상으로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고인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국가 형제회 다문화 위원인 이 혁중 요셉 형제님께서 사임을 표 하셨습니다. 피닉스 형제회를 위해서 많은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형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회계보고 7월말>

	항목	금액	합계
이월			\$924.65
수입	회비 (5월)	\$170.00	
	회비 (6월)	\$260.00	
	기부금, 피정 잔여금	\$163.00	
지출		\$121.00	
잔고			\$1,396.65

주님의 평화 와 모든 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간 별고 없이 안녕들 하셨습니까? 저는 이곳 뉴저지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김기수신부님께서 7월 26일 오후 2시 20분에 Delta Air Line 편으로 케네디 공항 (J.F.K.)을 출발하여 하와이에 들려서 형제회를 하나 발족 시키고, 다시 우리 프란치스코 선교지인 중국 두만강목장으로 떠나십니다. 그곳에서 힘든 노동을 하시다가 다시 9월 7일 뉴욕으로 돌아 오셔서 중요한 업무 몇 가지를 보시고 나서 다시 10월 초순경 북한 함경도지방으로 떠나시게 되는데 그때에 저도 함께 북한에 가게됩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김신부님과 함께 떠났어야 했는데 부득히 이곳에서 해야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서 함께 가지 못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 우리집 사람(김정순 테레사자매)이 9월 7일 평양을 방문하고 9월 17일에 다시 이곳 뉴저지로 돌아 올 예정인데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재미 있는 소식은 저의 5남매 자녀들이 부모님의 결혼 50주년 (금혼식)을 기념 한다고 날짜를 잡은 것이 7월 8일인데, 그날이 바로 제가 56년 전인 1951년 7월 8일 육군 제31 야전 병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세와 견진을 한꺼번에 받은 날이 있었습니다. 한 평생을 살아오면서 Happy Birthday는 해 마다 하면서 영혼의 생일은 한번도 지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금혼식과 영세 56주년을 함께 기념 했습니다. 아주 가족 같이 가깝게 지내는 분들과 형제회 회원들 약 80여 명의 축하객이 모인 가운데 큰아들네 집에서 조촐하게 치루었습니다. 한국에서 안동 교구장을 지내신 두봉 주교님께서 보내주신 축하 메시지가 낭독되는 가운데 김기수신부님의 주례로 혼인 재신식에절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몇 가지 소식을 드리고, 다음 달에 또 소식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안녕히 들 계십시오. 작은 형제 김종덕 미카엘 드림.



태양의 노래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여!
찬미와 영광과 칭송과 온갖 좋은 것이 당신의 것이옵고.

호물로 당신께만 드러져야 마땅하오니 지존이시여!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도 부당하여이다.

내 주여! 당신의 모든 피조물 그 중에도,
언니 햇님에게서 찬미를 받으사이다.
그로 해 낮이 되고 그로써 당신이 우리를 비추시는.

그 아름다운 몸 장엄한 광채에 번쩍거리며,
당신의 보람을 지니나이다. 지존이시여!

누나 달이며 별들의 찬미를 내 주여 받으소서.
빛 맑고 절묘하고 어여쁜 저들을 하늘에 마련하셨음이니이다.

언니 바람과 공기와 구름과 개인 날새, 그리고
사시사철의 찬미를 내 주여 받으소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저들로써 기르심이니이다.

쓰임 맑고 겸손하고 값지고도 조출한 누나
물에게서 내 주여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아리고 재통되고 힘세고 용감한 언니 불의 찬미함을
내 주여 받으옵소서.
그로써 당신은 밤을 밝혀 주시나이다.

내 주여, 누나요 우리 어미인 땅의 찬미 받으소서.
그는 우리를 싣고 다스리며 울긋불긋 꽃들과
풀들과 모든 가지 과일을 낳아 줍니다.

당신 사랑 까닭에 남을 용서해 주며,
약함과 괴로움을 전디어 내는 그들에게서 내 주여 찬양 받으사이다.

평화로우 참는 자들이 복되오리니,
지존이시여! 당신께 면류관을 받으리로소이다.

내 주여! 목숨 있는 어느 사람도 벗어나지 못하는
육체의 우리 죽음, 그 누나의 찬미 받으소서.

죽을 죄 짓고 죽는 저들에게 양화인지고,
복되다. 당신의 짝없이 거룩한 뜻 좇아 죽는 자들이여!
두 번째 죽음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리로소이다.

내 주를 기려 높이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드릴지이다.
한껏 겸손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이다.

